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 결정 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하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 결정 유형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어 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 20명을 심층면담하고 질적연구 방법인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 경험과 관련하여 91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 경험의 핵심범주는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로 밝혀졌다. 둘째, 참여자들의 직업 결정 양상은 자기주도 성취형, 자기선택 만족형, 현실수용 타협형, 그리고 상황의존 갈등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범주에 대한 논의와 각 유형에 대한 상담 개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우수아 집단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주요어 :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 직업 결정 유형, 근거이론

[†] 교신저자 : 하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2637, E-mail : hajung68@hanmail.net

최근 한국 사회에는 사회 제반 여건의 변화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유능한 여성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우수한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전문직과 관리직으로의 여성의 진출은 2000년대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 예로 2007년도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법연수생 중 판사 임용된 여성은 전체(90명)의 64.4%에, 검사 임용은 전체(100명)의 44%에 해당하였다(한겨레신문, 2007).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알파걸(α girl)’이란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면서 이 현상에 주목하였다. 더불어 이들이 남성중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어디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 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수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해왔으며 이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부족하다(Kerr, 1994).

전통적으로 우수한 여학생들의 경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유능하다’는 것과 ‘여성이다’라는 것에 동시에 직면하면서 본격적인 성역할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err, 1994; Klein & Zehms, 1996). 우수한 여자 청소년의 이와 같은 발달 과정에서의 변화는 성역할 고정관념(Taber, 1992), 낮은 효능감(Fox, Benbow & Perkins, 1983), 낮은 자존감(Hollinger & Flemming, 1988) 등으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우수한 여성들의 학업 성취와 직업 성취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로발달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들의 진로발달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실정이다.

우수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국외 연구를 살펴 보면, Terman(1925, Kerr, 1994 재인용) 이후의 영재 여성 연구는 주로 학업 성취가

우수한 여학생의 진로 연구에서 자신의 우수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남성과 여성의 성취의 차이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들에서 우수 여성의 교육과 직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다루어진 주제들은 멘토링(Kaufmann, Harrel, Milam, Woolvertoon, & Miller, 1986), 결혼과 자녀양육(Arnold, 1993; Dolny, 1985), 성역할 사회화(Card, Steele & Abeles, 1980), 교육의 중요성(Bizzari, 1998), 부모의 압력(Kerr & Cohn, 2001) 등이었다. 더불어 우수 여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이들의 능력과 성취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Brown & Gilligan, 1992), 귀인 방식(Reis, 1998; Walker, Reis, & Leonad, 1992), 사회성 발달(Kerr & Sodano, 2003), 로맨스 문화(Holland & Eisenhart, 1990)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최근 국외의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몇몇 질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Reis와 Diaz(1999)는 도심에 살고 있는 학업 성취가 우수한 여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직업적 포부에 관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성취동기가 매우 강했으며 이들의 성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 개인적 특성, 탄력성, 지지체계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등이 발견되었다. 이 결과는 이전 연구(Brown & Gilligan, 1992; Callahan, Cunningham, & Plucker, 1994)에서 발견된 우수여성의 성취와 자기 확신이 사춘기 동안 감소하거나 재능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과 상반된 결과였다.

Grant 등(2000)은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교육과정상에 있는 7명의 학업 우수 여학생의 직업관련 결정과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질문지와 면담을 이용하였는데, 이들의 진로결정이 막연

하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고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고려하면서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발견은 학업우수 여자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진로발달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과 발달 단계별, 대상 집단별로 직업 선택이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를 세분화해서 밝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연구 대상의 입장에서 현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질적 연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우수 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최근 들어 학업성취가 우수한 여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양적 연구가 몇몇 시작되었다. 박승리(2006)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우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모형을 검증하였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 자기 효능감이 진로장벽을 통해 진로포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수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였다. 이아라(2006)는 진로장벽, 학업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를 밝혔는데, 우수 남학생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학업 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우수 여학생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학업 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학업 우수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을 비교한 연구(박은혜, 2006)를 보면 우수 여학생은 일반 여학생보다 직업포부가 높았으며 초등과 중등 때는 우수 남학생보다 포부 수준이 낮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들에서 선정한 몇몇 변

인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는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발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구체적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여자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의 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셋째, 한국의 우수 여자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변수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의 생활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살아있는 경험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정 발달단계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1999)은 ‘진로를 결정했다’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란 용어가 그 의미의 범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직업결정 경험을 알아보려고 한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복잡한 직업결정 경험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분석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근거이론방법은 ‘참여자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접근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우수 여학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으로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

경험과 그 유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우수 여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진로상담 및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반학교 재학생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학교에서 성적이 전교 석차 상위 10위 이내인 경우(대부분 전교 석차 3%이내)였고 특목고 재학생(외국어고등학생)은 서울 소재의 학교에서 성적이 중상위권 그룹에 속한 경우였다.

위의 연구 참여자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에게 연구 목적 등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서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표본 추출 과정에서 학교유형, 형제 순위, 부모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17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연구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범주를 발견하고 범주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을 가진 어머니를 둔 참여자 3명을 별도로 추가 표집하였다. 2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8명, 5개 일반 고등학교 학생 12명, 총 2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명에 대한 1차 면접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이루어졌으며 2차 면접은 20명 가운데 16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또는 3학년 1학기 초반에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외동 2명, 딸 둘의 맏이 6명, 남매 중 맏이 8명, 남매 중 둘째가 4명이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양부모님이 계셨고 아버지의

종사 직종은 교수, 의사, 약사, 판사, 회사원, 자영업, 사업가, 학원 강사 등 다양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가 5명이었고 종사 직종은 의사, 약사, 학원 강사, 자영업이었다. 부분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2명으로 공예가와 피아노 교사였다. 현재 전업주부는 13명이었다.

참여자들이 결정한 직업은 교수 4명, 의사 4명, 치과 의사 1명, 수의사 1명, 연구원 1명, 검사 2명, 판사 1명, 변호사 1명, 외교관 1명, 교사 1명, 경영인 1명, 경영컨설턴트 1명, 그리고 기사가 1명이었다.

자료 수집

연구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자와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다. 인터뷰는 1회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참여자의 학교나 집 또는 연구자의 학교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녹취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하거나 연구보조원이 입력하였다. 연구보조원이 입력한 경우는 연구자가 인터뷰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입력한 분량은 A4용지로 평균 20장 내외였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본 연구자가 모든 면담을 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1차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1차 면접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험이나 사건, 사람 등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질문을 하면서 참여자의 진술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구체

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조건들과 상호작용전략을 밝히기 위해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

면접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면담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각 단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한 범주 분석과정을 통해 패러다임 모형을 파악한 후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패러다임 모형과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개방 코딩

개방 코딩을 통해 근거자료에 나타난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개방코딩 동안에 자료는 개별 부분으로 분해되어 검사된 후, 유사성과 차이점이 비교되었으며 본질상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고나 사건, 작용은 “범주”라 불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이게 된다(Strauss & Corbin, 1998).

축 코딩

축 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축 코딩의 분석적 도구인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인과적 조

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구조를 밝혔다.

선택 코딩

선택 코딩에서는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교화하고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평가로서 Lincoln과 Guba(1985)가 연구 결과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추구하고자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과 분석결과들을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s)을 거쳤다.

전이가능성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업우수 여자 고등학생 3인에게 본 연구 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의미있고 적용 가능한 결과인지 검증하게 함으로써 확보 되었다.

의존성은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사가능성(audibility)으로 대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수료생 1인이 별도로 원 자료를 분석한 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상담심리전공 교수 2인과 근거이론 방법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박사 1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 과정 전반과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의 확증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

당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동료 연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연구의 의도 그리고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와 분석과정을 제대로 따름으로써 편견적 시각이나 기존 연구결과들을 증명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결 과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자료의 범주화

개방코딩에서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와 범주의 속성 및 차원을 규명하였으며 91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표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일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게 되거나 결정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서 직업 결정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 때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게 되고 이 현상을 중심으로 일련의 탐색, 대처, 조율, 수용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정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생김’과 ‘결정에 대한 외적 자극을 받음’은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범주로 밝혀졌다.

중심 현상

본 연구에서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

업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중심 현상은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과 잘 하는 것을 살리고 싶은 강한 바람을 가졌으며 직업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면서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내적·외적으로 높은 직업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였다.

맥락적 조건

본 연구 결과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은 ‘학업 성취가 직업적 포부를 이끌어냄’,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받음’ 그리고 ‘성취와 독립적 삶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됨’으로 나타났다. 이 세 조건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의 중심현상이 가지는 속성과 차원에 차이가 있었다.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관심 직업을 갖게 됨’, ‘진로장벽을 인식함’ 그리고 ‘자아 탄력적임’으로 나타났다. 이 세 조건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적 행위와 반응을 수행해 나가는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에 변화가 있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

본 연구 결과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들이 직업 결정 과정에서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이란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정보를 탐색함’, ‘진로 장벽에 대처함’, ‘중요한 가치 기준을 세우고 적용함’, ‘부모의 의견과 조율함’ 그리고 ‘내적 수용 과정을 가짐’이었다.

표 1.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경험 개념의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됨	스스로	결정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생김	인 과 적 조 건
삶의 목표를 정해야한다고 생각함	결정하고자 함		
어릴 적 꿈의 비현실성을 느낌	현실감을	결정에 대한 외적 자극을 받음	중 심 현 상
현실적인 직업 목표가 필요해짐	갖게 됨		
진로상담과정에서 고민하게 됨	결정에 대해	결정에 대한 외적 자극을 받음	중 심 현 상
직업을 결정한 친구들에게 자극받음	자극 받음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결정해야함	진학준비로	결정에 대한 외적 자극을 받음	중 심 현 상
계열선택을 해야 함	필요해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음	“나”를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	중 심 현 상
잘하는 것을 살리고 싶음	살리고자 함		
자신의 일을 가져야함	주체적으로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	중 심 현 상
자신이 주도하는 일을 하고 싶음	살고자 함		
“뿌듯함”을 느끼고 싶음	성취를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	중 심 현 상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음	추구함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	중 심 현 상
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존재가 되고자 함		
학업성취를 통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됨	학업성취로 인해 자기	학업성취가 직업포부를 이끌어냄	맥 락 적 조 건
학업 성취를 통해 자긍심 갖게 됨	효능감이 높아짐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싶은 직업 할 수 있음	학업성취에 따라	학업성취가 직업포부를 이끌어냄	맥 락 적 조 건
성취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사회분위기 인식함	직업선택이 좌우됨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가정 분위기임	부모의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받음	맥 락 적 조 건
부모가 큰 진로방향을 계획하고 준비시킴	지원을 받음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받음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받음	맥 락 적 조 건
부모의 기대를 받음	기대를 받음		
부모가 직업(전문직)을 가져야하는 중요성을 심어줌	여성이 직업을 갖는	성취와 독립적 삶의 가치관이 형성됨	맥 락 적 조 건
엄마(여성)가 직업을 가진 점 긍정적으로 생각함	것을 가치롭게 여김		
노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음	성취의 중요성이	성취와 독립적 삶의 가치관이 형성됨	맥 락 적 조 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부모가 가르침	내면화됨		

표 1.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경험 개념의 범주화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좋아하는 분야(과목)를 갖게 됨 자신의 소질을 알게 됨	흥미와 소질이 드러남	관심 직업을 갖게 됨	
아버지 직업에 영향을 받음 주변에서 관심 직업의 모델을 알게 됨 책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됨	직업 모델을 경험함		
목표 직업을 성취하기에 현재 성적이 부족함 치열한 내신 경쟁으로 뒤쳐질까 걱정됨	학업 성적이 불안함	진로 장벽을 인식함	중 재 적 조 건
신체적 조건이 목표 직업과 맞지 않음 경제적 여건의 부족을 느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함		
직업정보가 부족함 특정 직업을 선택해야 인정받는 사회분위기임 이공계 기피 현상을 접함	선택의 폭이 제한됨		
여성이 직업에서 차별받는 점 인식함 중요한 타인이 여성에게 힘들다고 말함 자녀를 낳으면 직업생활 힘들어진다고 인식함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인식함		
아버지는 딸이 힘든 일 하는 것 싫어함 부모와 자신의 선호 직업이 다름	부모의 선호와 다름	자아 탄력적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맺고 타인의 지지를 이끌어냄 자기 조절을 잘함	유연하게 적응함		
승부욕이 강함 주장적인 성격임	자기 주장적임		
스스로 직업 정보를 찾아봄 중요한 타인에게 물어봄 직업에 대해 조사하는 학교 숙제를 하게 됨	직업 정보를 탐색함	정보를 탐색함	작 용 / 상 호 작 용 전 략
직업 관련 심리검사결과를 참조함 자신에게 맞는지 따져봄	자신에 대해 탐색함		

표 1.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경험 개념의 범주화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현실적·사회적 제약을 받는 직업은 피함	처음부터 제약과		
여성에게 불리한 직업은 제외함	불이익을 고려함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함	성적 향상을 위해		
취약한 과목을 보완하려고 애씀	노력함	진로 장벽에	
선택 직업에 도달하는 여러 방안을 고려함	대안을 마련함	대처함	
대안 직업을 생각해 둠			
결혼·자녀양육에 대한 미래계획이 아직은 없음	자녀양육에 대한		작 용
출산과 육아로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음	입장이 다양함		
내적 가치가 중요함	중요한	중요한	/ 상 호
외적 가치를 우선함	가치기준을 세움		
직업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있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우고 적용함	작 용 전 략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충족시켜야함	선택함		
부모가 결정권을 딸에게 줌	부모의 관여정도가	부모의 의견과	조율함
부모가 바라는 직업을 권유함	다양함		
부모의 선호를 고려함	부모의 선호와		
부모의 권유에 휘둘리지 않음	조율함		
선택한 직업에 대해 부모와 의논함			
선택 직업의 가치명분을 찾음	내 것으로	내적 수용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짐	만들어감		
미래 직업 생활을 그려봄	긍정적으로	가짐	
선택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함	받아들임		
직업 결정이 확고함	진로가 분명해짐	결정에 대해	
미래계획을 구체적으로 함	직업 결정으로		
직업을 결정하고 자신감이 생김	심리적 안정감을 얻음	확신을 얻음	
직업을 결정하고 편안해짐			
공부 의지가 강해짐	공부를 더	학업 성취에 대한	
공부하는 의미를 갖게 됨	열심히 함		
준비해야할 것이 분명해짐	준비의식이 생김	내적 동인(動因)이	결 과
직업 목표를 향해 나를 만들어나감		강화됨	
스스로 최종 선택함	자율성을 키워나감	자율과 성장을	
책임의식을 갖게 됨	자기 정체감이		
나를 알아가게 됨	발달됨	얻음	
삶의 가치방향을 정립함			
직업 선택이 변경될 수 있음	선택이 잠정적임	도달에 대해	
여러 가지 목표 직업을 정함	미래에 대해 불안함		
미래가 막연함			
목표 직업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안함			

결과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 결정 과정에서 ‘자기(self)를 실현하는 큰 포부를 품음’이라는 중심 현상에 대해 ‘정보를 탐색함’, ‘진로 장벽에 대처함’, ‘중요한 가치 기준을 세우고 적용함’, ‘부모의 의견과 조율함’ 그리고 ‘내적 수용 과정을 가짐’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결정에 대해 확신을 얻음’, ‘학업 성취에 대한 내적 동인이 강화됨’, ‘자율과 성장을 얻음’ 그리고 ‘도달에 대해 불안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핵심 범주: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

핵심범주는 Strauss가 제시한 핵심범주의 6가지 준거를 적용하여 자료에 자주 나타나고,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되고, 이론을 함축하고, 이론이 단계적으로 진척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Strauss & Corbin, 1998).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은 직업 결정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생기고 외적 자극을 받음으로 직업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들은 우수한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이에 걸맞은 탁월한 사회적, 직업적 성취와 인정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잠재성과 본성인 자기(self)를 실현하면서도 자신의 내적·외적 성취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다. 따라서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온 우수한 학업 성취를 탁월한 사회적 성취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직업 선택을 추구하게 되

는데, 이들의 ‘웬만한 직업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추구하는 성취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이러한 직업적 추구는 학업 성취 외에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성취하는 삶과 독립적인 삶은 이들의 학업과 인생에서 당연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와 독립적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부모의 지원과 기대는 이들이 큰 직업 포부를 품게 하고 이들의 포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직업을 결정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참여자들의 탁월한 성취를 향한 추구는 여러 상호작용과 전략을 통해서 이행되는데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대처하며 중요한 가치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며 부모의 의견과 조율하고 내적 수용 과정을 가지는 등의 자기 조절과 자기 선택의 경험이었다.

직업을 선택하고 부모와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선택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부모의 의견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부모의 선호를 미리 고려하기와 부모의 권유에 휘둘리지 않기,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하고 승인을 구하기,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등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관심 직업보다 부모가 권유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즉, 자율적 선택이 침해된 경우에 그 직업에 대해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 탐색하고 스스로가 최종 선택했다는 인식을 갖는 과정이 중요하다. 내적 수용 과정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선택한 직업이든 부모를 중심으로 선택한 직업이든 선택한 직업의 가치명분을 찾는다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또는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결정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미래 자신의 직업생활모습을 그려보거나 선택한 직업의 좋은 면을 찾는 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은 직업결정의 결과로 자신감과 편안함 속에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 선택했다는 의식을 통해 자율성을 키워나가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갖게 되는 자기 정체감 발달을 통한 성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직업 결정은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도달을 위해 준비하는 시발점의 의미를 갖게 한다.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실존적 두려움과 현실적으로 부족한 성적 등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목표 직업의 성취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더욱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의식을 갖는다. 이상의 일련의 직업 결정과정은 성취를 향해서 자율적으로 길(직업)을 찾은 다음 다시 또 성취를 향해서 자율적으로 길(방법으로서의 학업)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로 밝혀졌다.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을 자기주도 성취형, 자기선택 만족형, 현실수용 타협형, 상황의존 갈등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기주도 성취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기 효능감과 진로 포부가 가장 높으면서 진로장벽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나 중학교 저학년때 직업 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들은 일찍부터 우수한 학업 성취를 통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성취와 성공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발달되어 있다. 더불어 성취와 독립을 강조하는 부모의 가치관과 가르침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독립과 성취의 가치관이 강하게 내면화되고 부모의 지원과 기대도 강하게 받으면서 큰 직업포부를 품게 된다.

이 유형은 좋아하는 과목과 활동 그리고 직업 모델을 통해서 관심 직업을 갖게 되며 진로장벽 인식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매우 자아탄력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주체로 강한 성취동기를 향해 적극적으로 탐색, 선택,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 부모와의 조율 과정에서 여러 전략을 수행한다. 부모와의 조율과 합의도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내적 수용 과정을 가진다. 따라서 직업결정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얻고 자율과 성장을 얻으며 결정된 직업에 도달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 한편 이들의 성취 자신감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은 도달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낮게 경험하도록 해 준다. 이 자기주도 성취형은 그림 1에 표현되어 있다.

자기선택 만족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이 최상위권은 아니라고 인식하였으며 서서히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학업성적이 향상되었다.

이 유형은 무엇보다 자기(self)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고 자신들의 관심분야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질과 관심 직업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때로 부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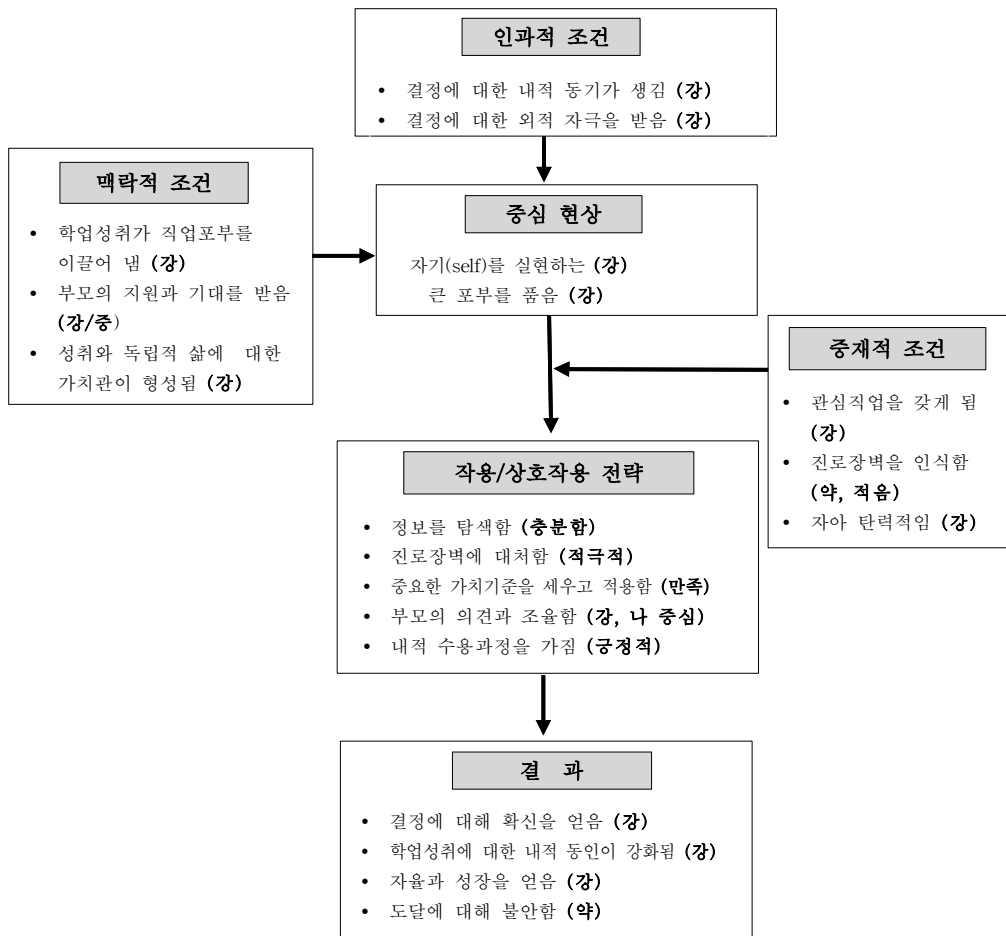


그림 1.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자기주도 성취형)

기대나 사회적 직업 선호 분위기에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이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뚜렷한 관심분야를 살리고자 하는 면이 강하였다. 강한 자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중심으로 직업 탐색, 선택, 조율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나름대로 진로장벽의 일부분을 강하게 인식하였지만 자신의 관심분야에서의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동기강화가 강하게 이루어졌고 자신이 선택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노력하는 방법으

로 대처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내적 수용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강한 자기 확신을 얻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선택한 목표 성취를 위해 학업 성취에 대한 내적 동인도 강화되었으며 자율과 성장을 얻었다. 반면 도달에 대한 불안함은 어느 정도 경험하였다. 이 유형은 그림 2에 표현되어 있다.

현실수용 타협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결정에 대한 내적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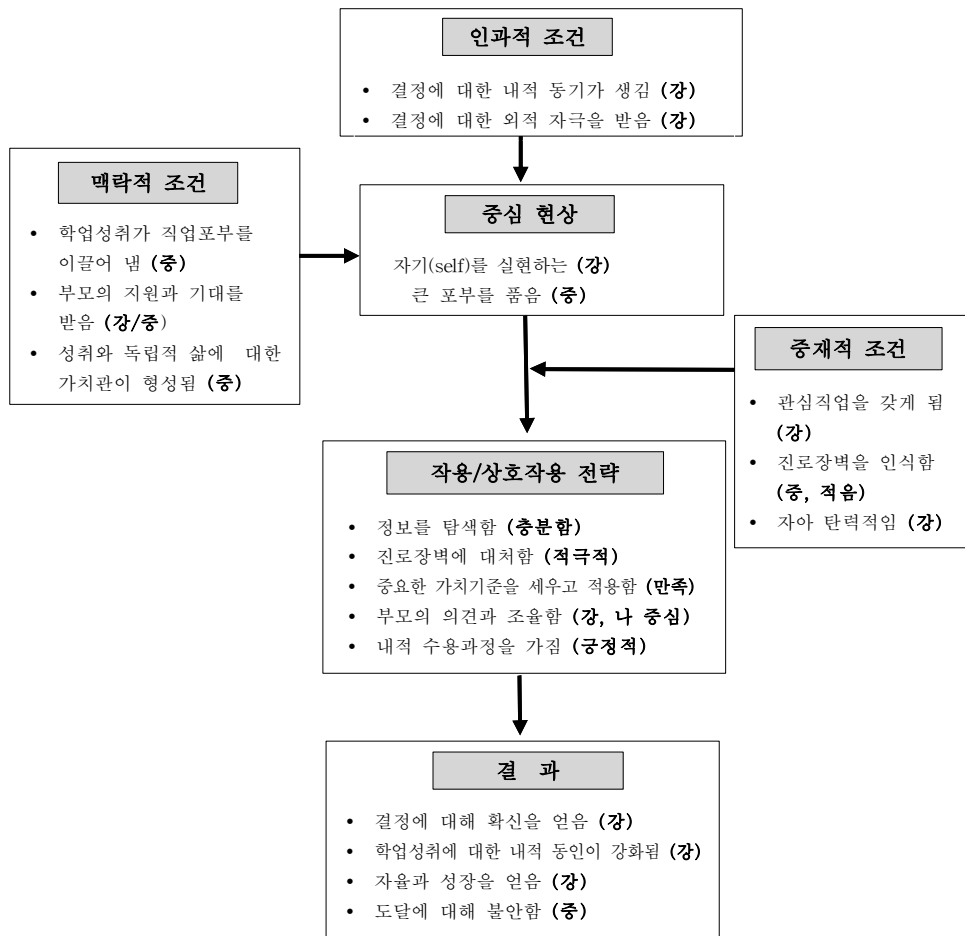


그림 2.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자기선택 만족형)

기와 외적 자극을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게 되는데 이들의 선택은 부모의 기대나 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하지만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을 찾는 과정은 동기 강화가 강했으며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였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자신의 관심 직업을 뚜렷하거나 강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부모의 권유나 상황적 요인, 진로 장벽을 고려하면서 부모의 의견과 조율하였다. 부모가 권유한 직업이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선택 기준에 만족스럽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였다.

이 유형은 현실적인 상황과 부모님의 반대하는 이유나 권유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면이 강했다. 따라서 이들은 내적 수용과정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면서 결정 확신 단계에 도달하였고 학업성취에 대한 내적 동인도 강화되었다. 미약하나 자율과 성장을 획득하였으며 도달에 대한 불안함도 어느 정도 경험하였다. 이 유형은 그림 3에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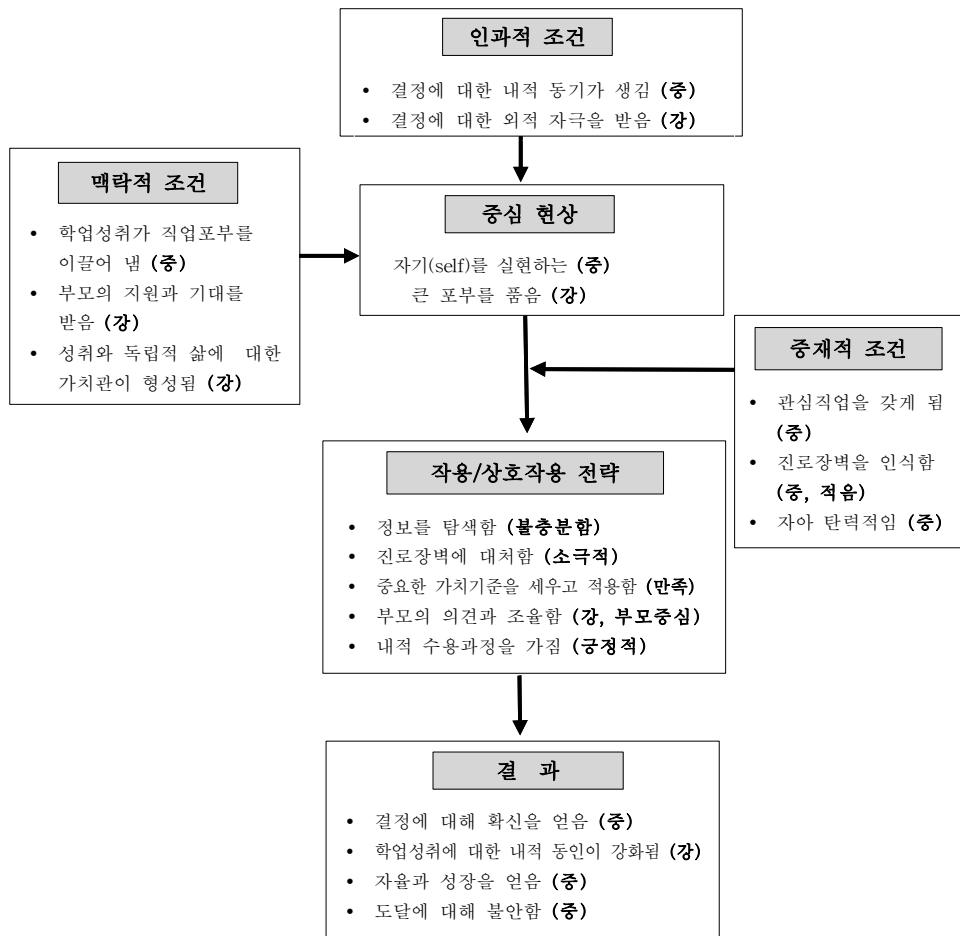


그림 3. '타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현실수용 타협형)

상황의존 갈등형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결정에 대한 외적 자극에 선택이 좌우되거나 진로장벽을 강하게 인식하였으며 자신의 관심분야가 뚜렷하지 못하거나 선택 자체가 부모의 기대나 처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들의 타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을 찾는 과정은 동기 강화가 약했으며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진로 장벽에 대한 대안 마련이나 적절한 고려와 현실적인 노력 등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선택 직업이

자신의 가치 기준이나 중요한 선택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거나 장벽을 많이 지각하기 때문에 내적 수용과정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면서 결정 확신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내적 수용 과정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전 여러 단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결정에 대한 확신이 약하고 학업성취에 대한 내적 동인도 강화되기 어려우며 자율과 성장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더불어 도달에 대한 불안함을 가장 크게 경험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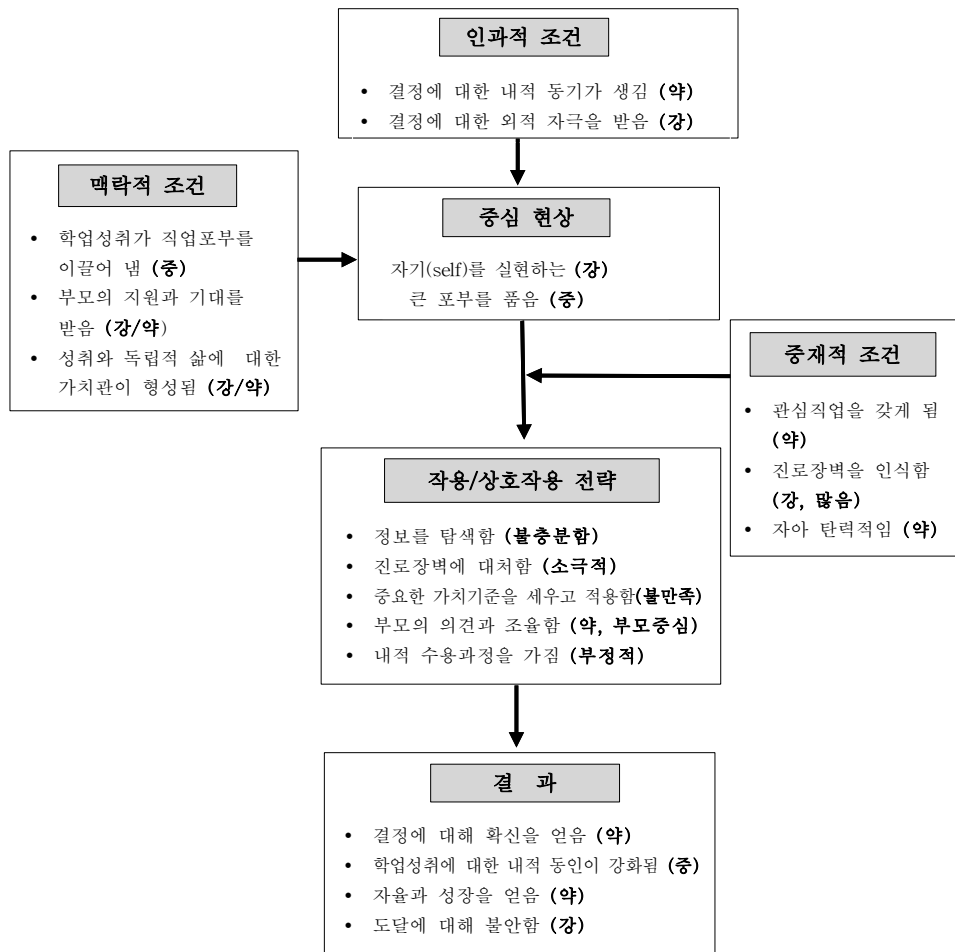


그림 4.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상황의존 갈등형)

유형은 그림 4에 표현되어 있다.

논 의

핵심범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경험은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였다.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탐색, 선택, 조율, 수용, 그리고 결정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였다.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은 직업결정 경험을 통해 자기이해를 넓히고 삶의 가치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구체적 계획을 할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의미를 갖게 됨으로써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학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성취를 목표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인 자율성 발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

였다.

자율성이란 발달적 관점에서 독립적 개체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자율성 개념은 부모로부터의 독립(Lopez, 1989), 의사결정과 자기 통제에서의 자신감(Greenberger, 1984) 등 다양하게 이해되어 오고 있다. 특히, Blos(1983)는 정신분석학적 견해를 수정하여 분리 자체 보다는 개별화에 초점을 두어 정서적 자율성 개념을 발달시켰다. 개별화란 이제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관계적 맥락으로부터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지각하면서 자기정체감을 발달시켜가는 성숙의 한 과정으로서 내적지시(inner-direction), 자기조절(self-regulation),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의 능력 즉, 자율성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청년후기와 성인초기를 자기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부모와 자신의 서로 다른 관심과 태도 등을 조화시키려는 적응과 통합과정이 일어나면서 자기조절이라는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한편 Greenberger(1984)의 행동자율성 이론은 자율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율성 발달이 촉진된다고 설명하였다. 행동자율성의 주된 요소는 행동과 의사결정의 자기 주체성(self-reliance)이다. 자기 주체성이란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삶을 자신이 주체가 되어 통제하는 감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 개념은 내적통제, 자기주장, 독립성의 속성과 비슷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율성 발달은 내적 동기 강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 주체가 부모인지 자신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행태도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조건들에 의해 다양한 결정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얻는 정도와 자율과 성장을 얻는 정도,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동인이

강화되는 정도 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서부터 결정에 대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이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도록 만드는 맥락적 조건일 수 있다. 김혜온과 이진순(2006)의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은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기대에 대한 정서적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의 연구에서 한국의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물리적, 심리적으로 더 의존적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겹쳐진 자기개념'을 형성한다는 관계적 자기 모델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많이 받는 우수아의 경우에는 자율성 획득이 쉽지 않은 면이 예상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지원과 기대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여정도가 다양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영향 받는 정도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 속에서 학업우수 여자청소년들이 자율성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근거는 '부모와 의견을 조율함'과 '내적 수용과정을 가짐'이란 범주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을 중심으로 부모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부모의 선호를 고려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가 바라는 직업을 강하게 권유하는 경우에 참여자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내적 수용과정에서 선택 직업의 가치명분을 찾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인지과정을 통해서 선택 직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졌다. 물론 이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탐색 과정부터 다시

결정과정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학업우수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직업결정에 확신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이후 청년기와 성인기의 직업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미결정, 준비부족, 적응부족, 등의 직업 정체감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성과 부합되는 이론은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자율성(autonomy) 혹은 자기결정성이라는 행동을 연속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한쪽 끝에 있는 행동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행동(내재적 동기)이고 다른 한쪽에 있는 행동은 심리적으로 강요된 행동이거나 외적으로 통제된 행동(외재적 동기)이라고 설명한다. 내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에는 자기결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일부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도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이러한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외재적 동기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외적 조절은 외부의 보상이나 강제를 이유로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부과된 조절은 외부에서 부과된 가치를 부분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한 동기를 의미한다. 확인된 조절은 특정 행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동기로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조절은 외부의 가치를 완전히 내면화할 뿐 아니라 그 가치가 자기구조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기라는 점에서 확인된 조절보다도 자율성 수준이 높다고 가정되는 외적동기이다(Deci & Ryan, 2002).

따라서 이 이론은 인간이 외적 보상 때문에 시작한 행동이 점차적으로 자신에게 내면화되

어 결국에는 외적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나 가치가 자기에 내면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내재적 동기와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최근 Walls와 Little(2005)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확인된 조절 동기가 적극적인 노력을 유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학교 적응과 긍정적인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 주체가 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적 수용과정을 거침으로써 확인된 조절 능력 또는 통합된 조절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율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맥락적 조건들, 즉 우수한 학업성취라는 자신의 유능성과 부모로부터 내면화된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지원과 기대를 고려해 볼 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자기결정이라는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는 이들의 선택 과정에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긍정적으로 거치는 경우에 결정 확신과 자율과 성장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내적 동인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해석해보면 이들의 우수한 학업 성취는 이러한 확인된 조절 능력과 통합된 조절 능력의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학업성취와 진로결정과정의 순환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업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초, 중, 고 일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기결정성 동기 유형을 연구한 김아영(2002)은 학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고등학교로 가면서 무동기 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학업적 동기는 자기효능감에 의해 학업 성취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 능력, 내적 조절을 통해서 내재적 동기를 키워나가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학업 우수자 가운데서도 이 경향의 개인차에 따라 진로발달 등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에서 학업과 직업에서의 성취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Bandura(1986)는 이러한 성취행동의 기저에 있는 성취동기에 대해 타고난 성질이라기보다는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성취동기가 개인적 요인과 사회-맥락적 요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자기반성적(self-reflective)이고 자기지시적(self-directive)인 자기과정(self-process)에 의해 중재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자신이 유능하다는 지각과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즉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자기-효능감)을 가질 때, 자기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교육이나 직업선택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높은 기준, 큰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몰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에서 ‘학업성취를 통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됨’, ‘학업 성취를 통해 자긍심을 갖게 됨’ 등은 이들이 학업을 통해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높게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진로결정 과정에서

도 ‘뿌듯함을 느끼고 싶음’과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음’ 등의 성취를 추구하는 것, 진로장벽의 인식과 대처, 선택 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진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성취를 향해 자율적으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중재적 조건인 관심직업이 생김, 진로장벽 인식, 자아 탄력성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관심직업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업 모델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별다른 직업관련 활동이나 교육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학과목에 의존해서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파악해야 했다. 부모 직업 중에서는 특히 아버지의 직업을 관심직업으로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어머니 직업 보다 직업 지위가 높은 아버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로장벽인식에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컸으며 가장 큰 장벽은 ‘목표직업을 성취하기에 현재 성적이 부족함’이었다. 그 외에 ‘아버지는 딸이 힘든 것 싫어함’이나 ‘중요한 타인이 여성에게 힘들다고 말림’ 등은 중요한 타인들이 우수 여학생들의 진로포부나 진로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과 ‘이공계 기피현상’이나 ‘특정 직업을 선택해야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선택이 제한되는 사회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여전히 우수한 여학생의 진로발달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장벽이 우수한 여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장벽과 어려움에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했으며 자기조절을 잘 하고 인간관계에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성취를 지향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우수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은 ‘자아 탄력적임’이란 범주를 통해 밝혀졌다. Reis와 Diaz(1999)의 연구에서도 우수 여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이들의 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들의 직업결정 경험은 다양한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 속에서 개인 수준, 부모 수준, 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에 의한 상담 개입

본 연구에서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으로 자기주도 성취형, 자기선택 만족형, 현실수용 타협형, 그리고 상황의존 갈등형의 4가지 하위 유형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우수아 집단 안에도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수 여학생의 진로발달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양성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상담개입과 조력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러한 하위 유형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 성취형은 성취와 성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진로장벽 인식도 미약하고 매우 자아 탄력적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

회진출과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당면할 수 있는 진로장벽에 대한 예측과 대처 방안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추구하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율성을 키워나감으로써 진정한 성취를 이루도록 조력할 수 있는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주도 성취형은 선택 확신이 강하고 도달에 대한 불안감은 가장 낮은 유형이므로 결정에 대한 확신과 추진이 가장 강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심직업에 대한 선택 동기, 자신의 욕구 그리고 처한 환경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바탕으로 자기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추진력과 함께 신중함과 융통성을 겸비한 성숙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선택 만족형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확신이 높는데 반해 도달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면한 현실적인 진로장벽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이나 성취와 독립적 삶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자기 선택에 대한 지지를 제공하고 이후 당면할 수 있는 부모의 선호직업 권유나 기대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키우는 접근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실수용 타협형은 부모의 지원과 기대가 자신의 관심직업보다 직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선택 동기를 충분히 탐색하면서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모의 기대나 상황적 요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도움으로써 내적 수용 과정을 의식화하고 더욱 공고화하는 작

업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선택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아탄력성 증진 등을 통해 이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상황의존 갈등형은 외적 압력에 선택이 좌우되고 진로장벽을 강하게 인식하며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을 찾는 과정에 대한 동기강화가 가장 약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부모의 기대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탐색과 이해가 우선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서 적절한 대처방안과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관심 직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탐색을 도와야 하며 자기 이해와 자아탄력성 증진, 내적 조절능력의 증진을 통해 자율성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의 '탁월한 성취를 향한 자율적 길 찾아가기'의 유형별 개입은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으로 조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개인의 문제는 일생을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의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미래 계획이 아직 없는 경우도 많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직업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힌 경우, 직업보다는 아이가 우선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대를 전후로 급락하여,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의 발달단계

에 따른 고려와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자들(Greene, 2001; Reis, 1998)은 우수 여성이 직업과 가족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도록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개인의 삶에 대한 생활 방식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여성 멘토(mentors)의 역할(Kerr, 1994; Reis, 1998)과 가치(values)의 개입(Miller, 1981)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관심직업을 갖게 됨'의 범주의 직업 모델의 역할과 '성취와 독립적 삶의 가치관이 형성됨'과 '중요한 가치기준을 세우고 적용함'의 범주의 가치관 형성은 이들의 직업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수 여성의 진로발달을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한 질적 연구로서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을 심층 면접함으로써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진로발달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은 여성으로서의 제약이나 어려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오늘날 가정과 사회의 변화와 이들의 우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불어 발달단계의 특성에 기인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발달단계에 초점을 두어 여성 진로발달의 변인들이 이후의 대학과 취업 실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은 결정의 내적 동기 수준, 학업성취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치관 형성, 성차별경험(성역할 사회화), 부모의 지원과 기대, 직업흥미, 직업모델, 진로장벽, 자아 탄력성, 진로 정보, 부모의 선호와 관여, 내적 조절과 수용, 자율성 발달 등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 집단 내의 다양한 유형의 직업결정 단계 및 진로발달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사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진로상담에서는 직업결정 유형별, 결정 수준별에 따라 모듈(module)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넷째, 학업우수 청소년들은 특히 부모의 의견과 조율하는 과정과 외적압력과 내적 욕구를 통합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자율성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성장을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학업우수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은 부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1999).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 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 연구*, 16(4), 169-187.
 김혜은, 이진순 (2006).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발달, 19(2), 21-40.
 박승리 (2006). 학업우수여학생의 진로발달모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문화심리학 총서 제 5권*. 서울: 교육과학사.
 박은혜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아라 (2006). 남, 녀 학업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계레신문 (2007). 여성 판·검사 임용 사상 최대, 1월 16일.
 Arnold K. D.(1993). Undergraduate aspirations and career outcomes of academically talented women: A discriminant analysis. *Roeper Review*, 15(3), 169-176.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izzari, J. C. (1998). An intergenerational study of three gifted women: Obstacles and challenges confronting women of high potential. *Roeper Review*, 21(2), 110-116.
 Blos, P. (1983). *Adolescence*. Stuttgart: KlettCotta.
 Brown, L., & Gilligan, C. (1992). *At the crossroa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llahan, C. M., Cunningham, C. M. & Plucker, J. A. (1994). Foundations for the future: The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adolescent women. *Roeper Riview*, 17, 99-105.

- Card, J. J., Steele, L., & Abeles, R. P. (1980). Sex differences in realization of individual potential for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 1-20.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olny, C. (1985). University of Toronto Schools' gifted students' career & family plans. *Roeper Review, 7*(3), 160-162.
- Fox, L. H., Benbow, C. P., & Perkins, S. (1983). *An accelerated mathematics program for girls: A longitudinal evaluation*. In C. P. Benbow and J. Stanley (eds.), *Academic precocity: Aspects of its development*.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rant, D. F., Battle, D. A., & Heggoy, S. J. (2000). The Journey through college of seven gifted females: Influences on their career related decisions. *Roeper Review, 22*(4), 251-260.
- Greene, M. J. (2001). Gifted adrift? Career counseling of the gifted and talented. *Roeper Review, 25*(2), 66-72.
- Greenberger, E. (1984). Defining psychosocial maturity in adolescence. In P. Karoly & J. Steffen (Eds.), *Adolescent behavior disorders: Foundations and contemporary concerns*(pp.54-81). Lexington, MA:Heath.
- Holland, D. C. & Eisenhart, M. A. (1990). *Educated in Romance: Women, Achievement, and College Cultur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 Hollinger, C. L., & Fleming, E. S. (1988). Gifted and talented young women: Antecedent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Gifted Child Quarterly, 32*(2), 254-261.
- Kaufmann, F., Harrel, G., Milam, C. P., Woolvertoon, N. and Miller, J., (1986). The nature, role and influence of mentors in the lives of gift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9), 576-578.
- Kerr, B. A. (1994). *Smart girls: A new psychology of girls, women and giftedness*. Scottsdale, AZ: Gifted Psychology Press.
- Kerr, B. A., & Cohn, S. J. (2001). *Smart boys: Talent, manhood, and the search for meaning*. Scottsdale, AZ: Great Potential Press.
- Kerr, B. A., & Sodano, S. (2003). Career assessment with intellectually gifted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2), 168-186.
- Klein, A. G., & Zehms, D. (1996). Self concept and gifted girls: A cross sectional study of intellectually gifted females in grades 3,5,8. *Roeper Review, 19*(1), 30-34.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opez, F. G. (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Miller, J. V. (1981). Overview of career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Journal of Career Education, 7*, 266-270.
- Reis, S. M. (1998). *Work left undone: Compromises and challenges of talented females*.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Reis, S. M., & Diaz, E. (1999). Economically disadvantaged urban female students who achieve in schools. *The Urban Review, 31*(1),

- 31-54.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Taber, K. S. (1992). Science-relatedness and gender-appropriateness of careers: some pupil perceptions.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ical Education*, 10(1), 105-115.
- Walker, B. A., Reis, S. M., & Leonard, J. S. (1992).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the lives of gifted women. *Gifted Child Quarterly*, 36, 201-206.
- Walls, T. A., & Little, T. D. (2005). Relation among personal agency,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1), 23-31.
- 원 고 접 수 일 : 2008. 3. 5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12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mong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Jung Ha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types among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in Korean social-cultural contexts. The Strauss and Corbin's(1998) grounded theory was adopted to explore their experienc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enty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 paradigm model was proposed. The core category in the experience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experience of female students was 'The autonomous finding of the way to eminent achievement'. From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ore category and the other categories, hypothetical statements were generated. As a result, four types were derived as follows: the self-initiative achievement type, the self-selective satisfaction type, the reality-receptive compromise type, and the context-dependent conflict typ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need specific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o assist their career development.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a policy issue, counseling issue, and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career decision-making type,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grounded theory